

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濟州仙景歌)> 연구

윤용택*

- I. 들어가는 말
- II. 현공 윤주일과 제주와의 인연
- III. 현공의 <제주선경가> 비교 분석
- IV. 현공의 <제주선경가>의 의의
- V. 맺는말

국문요약

현공 윤주일(玄空 尹柱逸, 1895~1969)은 우리나라 현대불교 선각자들인 용성 백상규(龍城 白相奎, 1864~1940), 만해 한용운(亶海 韓龍雲, 1879~1944) 등의 불교 개혁사상과 불교대중화 운동을 계승하여 실천한 불교사상가이다. 그는 한국전쟁 중에 제주도에서 피난생활을 한 인연으로 불교 포교노래인 <제주선경가>를 남겼다.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1953년 광주에서 맨 처음 활자화되었지만, 제주지역에 알려진 것은 1982년 제주신문 보도를 통해서였다. <제주선경가>는 제주신문에 실리는 과정에서 원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알려졌고, 잘못 알려진 내용이 지금도 제주지역에서 통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필요하다.

현공은 <제주선경가> 이외에도 <관세음보살찬탄가>와 <불국세계금수강산가>를 남겼다. 노래로 포교를 하는 것은 고려말 나옹의 <서왕가>를 필두로 하는 불교가사로부터 20세기 불교창가에 이르는 불가의 오랜 전통이다. 그런 점

* 제주대 철학과 교수.

에서 현공의 노래들은 그러한 전통을 잇고 있다. 현공은 <제주선경가>에서 그동안 유학자들이 도가적 이상향으로 구성한 영주십경을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주의 자연, 역사, 지명 등을 불교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제주섬이 불국정토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한 그의 시도는 영주십경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고, 지역민들의 눈높이 맞춰 대중포교를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앞으로 나머지 두 노래와 함께 가사문학적 측면, 불교사상적 측면, 제주불교사적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현공 윤주일, 제주선경가, 영주십경, 불교가사, 제주불교

I. 들어가는 말

현공 윤주일(玄空 尹柱逸, 1895~1969)은 우리나라 현대불교 선각자들인 용성 백상규(龍城 白相奎, 1864~1940), 만해 한용운(亶海 韓龍雲, 1879~1944) 등에게 사사하고, 이들의 불교 개혁사상과 불교대중화 운동을 계승하여 실천한 불교사상가이다. 그는 <제주선경가(濟州仙景歌)>¹⁾에서 조선 유학자들이 제주의 경관을 도가적 선경(仙境)으로 구성한 영주십경(瀛洲十景)을 불교적 관점에서 의미부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섬의 역사, 지형, 지명 등을 불교와 연관지으며 노래하고 있다.

현공은 <제주선경가> 외에도 불교대중 포교를 위해 <관세음보살찬단가(觀世音菩薩讚嘆歌)>²⁾, <불국세계금수강산가(佛國世界錦繡江山歌)>³⁾

- 1) 尹柱逸, 『佛敎講演集』(초판), 全南日報社, 1953, 337-340쪽; 尹柱逸, 『佛敎講演集』(재판), 全南日報社, 1962, 197-199쪽; 李東豪 編, 『玄空尹柱逸大師說法集』, 湖西文化社, 1987, 416-418쪽; 尹柱逸, 『佛敎講說』, 宣文出版社, 1988, 272-275쪽.
- 2) 尹柱逸, 『佛敎講演集』(초판), 全南日報社, 1953, 330-332쪽; 尹柱逸, 『佛敎講演集』(재판), 全南日報社, 1962, 192-194쪽; 李東豪 編, 『玄空尹柱逸大師說法集』, 湖西文化社, 1987, 411-413쪽; 尹柱逸, 『佛敎講說』, 宣文出版社, 1988, 266-268쪽.
- 3) 尹柱逸, 『佛敎講演集』(초판), 全南日報社, 1953, 332-337쪽; 尹柱逸, 『佛敎講演集』(재판), 全南日報社, 1962, 194-196쪽; 尹柱逸, 『佛敎講演集』, 李東豪 編, 『玄

를 지었다. 현공의 포교 노래들은 경허(鏡虛, 1849~1912), 용성(龍城), 학명(鶴鳴, 1867~1929), 만공(滿空, 1871~1946), 한암(漢巖, 1876~1951) 등의 20세기 불교가사(佛敎歌辭)의 전통과 권상로(權相老, 1879~1965), 김태흡(金泰洽, 1899~1989) 등의 신체불교가사(新體詩佛敎歌辭) 내지는 불교창가(佛敎唱歌)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공의 노래들은 불교가사 연구사에서 누락된 상황이다.⁴⁾ 따라서 이번 연구는 <제주선경가>를 중심으로 현공의 포교노래들을 국문학, 불교학, 제주학계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공은 <제주선경가>에서 팔만대장경 속의 <대아라한난제밀다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所說法住記)>⁵⁾를 근거로 제주도가 불가(佛家)의 고장임을 밝히고 있다. <제주선경가>는 제주라는 특정 지역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은 불교 포교 노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공의 <제주선경가>가 실린 『불교강연집』은 1953년 처음 출간되었지만, 정작 제주지역에서는 1982년에야 제주신문에 <제주선경가>가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⁶⁾ 하지만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신문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가로로 읽어서 보도함으로써 뒤죽박죽되어 원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주에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①<제주선경가>가 고려 팔만대장경에 실려 있다 ②<제주선경가> 속에 영주십경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영주십경은 고려 때부터 있어왔다 ③<제주선경가>는 팔만대장경 속에 있는 것을 윤주일 거사가 해석한 것이다 등 잘못 알려졌다.⁷⁾ 그리고 지금도 이처럼 잘못 알려진 <제

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湖西文化社, 1987, 413-416쪽; 尹柱逸, 『佛敎講說』, 宣文出版社, 1988, 268-272쪽.

- 4)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출판부, 2000, 779-881쪽; 김종진, 『불교가사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9, 289-341쪽; 김주곤, 「한국 불교가사의 작가 연구」, 『가사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 389-419쪽 참조.
- 5) 불멸 후 800년 경 집사자국승왕부(執師子國勝王部)에 출생한 대아라한 난제밀다라가 설법한 것으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불법을 전수하고 수호하는 것에 대해 설한 것으로, 줄여서 『대아라한법주기』·『대아라한설법주기』·『법주기』라고 하며, 당(唐)나라 때 현장(玄奘)이 654년에 번역하였다.
- 6) 『제주신문』, 1982년 7월 31일, 「海印寺 팔만대장경 가운데 <濟州仙境歌> 있어 주목」

주선경가>에 대한 내용과 정보가 제주지역에서 통용되고 있어서⁸⁾ 현공의 <제주선경가>에 대한 정확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현공 윤주일의 삶과 제주의 인연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현공 생전에 출간된 초판과 재판 『불교강연집, 1953, 1962』, 현공 사후에 출간한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1987』과 『불교강설(佛敎講說), 1988』에 실린 <제주선경가>들을 대조해보고, 그 차이와 사후에 이뤄진 수정들에 대해 평가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제주선경가>가 지니는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주선경가>는 대중들에게 노래로 불교를 포교하는 불교가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조선 유학자들이 수양을 위해 선경(仙境)으로 재구성했던 영주십경에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 부여함으로써 영주십경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제주선경가>는 제주의 자연, 역사, 지명 등에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민들이 쓰는 제주어(제주방언)를 노래에 수용함으로써 포교 노래의 새로운 모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주선경가>의 문학적 측면, 불교사상적 측면, 제주불교사적 측면 등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그의 다른 두 포교 노래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II. 현공 윤주일과 제주와의 인연

현공 윤주일(玄空 尹柱逸)은 1895년 11월 18일 전남 강진에서 부친 해남(海南) 윤(尹)씨 상호(相浩) 공과 모친 배정선(裴貞先) 여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명(兒名)은 용택(龍澤), 속명(俗名)은 주일(柱逸), 법

7) 양순필, 「凝窩의 ‘瀛洲十景歌’考」, 『백록어문』 8, 제주대 백록어문학회, 1991.
8) (사)제주특별자치도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사랑 걷는 말』 두 번째 펴내는 책, 2013; 제주문인협회 홈페이지 http://jejumunin.com/01_munin/board.php?board=jm001&category=9&command=body&no=693&PHPSESSID=b5ed2e0cdf5b205036fc3ce643dd0d2a

명(法名)은 묵암(默菴), 법호(法號)는 현공(玄空)이다.⁹⁾

현공의 행장을 보면 성장교육기, 항일개혁운동기, 대중포교활동기로 대별된다. 제1기 성장교육기는 탄생(1895)에서 출가이전까지 21년간이고, 제2기 항일개혁운동기는 출가득도하는 22세(1916)부터 평양에서 활동하던 52세(1946)까지 청장년기간이고, 제3기 포교활동기는 서울로 남하한 53세(1947)부터 입적한 75세(1969)까지 만년 23년간이다. 그는 1916년 대각사에서 용성(龍城, 1864~1940) 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하고, 용성, 만해(卍海, 1879~1944), 고당 조만식(古堂 曹晩植, 1882~1950)의 뜻을 받들어 1918년부터 1947년까지 평양에서 머물면서 사회사업과 불교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서울로 내려온 그는 역경원과 선학원에 머무르며 경전번역에 몰두하면서 대중법회도 병행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현공은 고향인 전남으로 내려온 후, 목포, 광주, 제주, 부산 등지를 다니면서 대중포교에 힘썼다.¹⁰⁾

현공은 근대 불교혁신운동과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용성과 만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말 불교성전을 만들고, 포교사를 양성하면서, 일반인이 보기 쉬운 포교서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¹¹⁾ 그는 평소에 임기응변으로 설법하지 않고 불경이나 논서를 교재로 선택하거나 강의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그런 강의원고가 모여서 이뤄진 게 『불교강연집(1953)』, 『불교대성전(1967)』 등이다.¹²⁾

현공의 제주와 인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공식적으로는 그의 행장, 연보, 기념비문에 “6.25동란으로 피난생활을 하면서 목포, 부산, 제주도(관음사)에서 포교사 양성과 대중포교에 힘썼다”는 대목이 유일하다. 다행히 현공의 제주생활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그의 영향을

9) 윤주일은 승려가 된 후에 결혼을 하였고 때문에 묵암(默菴)거사로도 불리지만, 그의 법제자들은 대체로 그의 법호를 따라 현공(玄空)이라 부른다.

10) 李東豪, 「玄空 尹柱逸大法師 紀蹟碑文」, 「玄空 尹柱逸大法師 年譜」, 「玄空 尹柱逸大法師 行狀」, 『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湖西文化社, 1987, 589-613쪽 참조; 梁銀容, 「玄空尹柱逸의 遺筆文件的 史料의 性格」, 『한국종교』 18,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3, 155-156쪽.

11) 尹柱逸, 『佛敎講演集』, 全南日報社, 1953(초판).

12) 이종표, 「현공 윤주일과 호남불교」, 『호남문화연구』 48,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302-303쪽.

받고 출가한 지현(智賢)이 1986년에 쓴 추모사에 등장한다. 지현은 당시의 현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回顧하건데, 지금으로부터 30餘年 前 濟州 漢拏山 靈峯에 거센 雪寒風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 日曜日이었습니다. 觀音寺 布敎堂에서 法會가 있어 그 法會에 參席하기 위하여 추운 거리를 한참 걸어서 布敎堂에 도착했습니다. 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雲集 大衆이 前보다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光州에서 오신 尹柱逸 大法師님께서 說法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로서는 그날 처음 法師님을 뵈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慈愛롭고 仁和로운 모습을 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서는 큰 法門이었거늘, 그 苦口叮嚀하신 法門말씀과 고결 청정하신 모습은 마치 觀音菩薩 大聖이 出現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그때의 감격 어린 추억은 永遠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는 高等女學生이었습니다. ... 집에 돌아와서도 오직 師의 法門 말씀만이 생각이 나서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빨리 日曜日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열심히 法會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法門을 들었습니다. ... 師의 說法을 들어온 지 어느덧 近一年이 지나서 나는 꼭 出家를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루는 時間을 내어 法師님이 계시는 濟州精舍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師께서는 六·二五動亂之中이라 피난차 濟州에 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그마한 房에 老母님을 모시고 아주 빈한한 生活을 하시니, 고생하신 그때가 師의 一生을 통해 가장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곤궁하신 가운데서도 師께서는 濟州의 佛教를 일신하시겠다는 一念으로 濟州 佛教의 發展을 위하여 조금의 휴식도 안하시고 苦心勞力하셨습니다. 以後 觀音寺 布敎堂엔 大衆이 점차 늘어나고 濟州 佛教에 서광이 비쳤습니다. 師께서는 觀音信仰의 篤信者이도 하셨습니다. 師는 몸소 行으로서 그 信心을 보여주었으며 甘露의 法雲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出家의 결심을 굳게 한 다음, 그 이듬해 나는 師를 따라 光州로 나오게 되었습니다....¹³⁾

이는 한국전쟁 중 제주에서 현공의 행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공은 한국전쟁 초기에 광주에 머물다가 1951년 겨울 제주도 관음사의 초청으로 제주에 가서 노모(老母)를 모시고 살면서 관음사 포교당을 무대로 교화활동을 하였다. 현공이 1952년 봄에 광주로 나왔다는 사실로 볼 때 그가 제주도에 머문 기간은 1년 남짓으로 보인다.

13) 지현, 「추모사」, 이동호 편, 『현공 윤주일대법사 설법집』, 호서문화사, 1987, 574-575쪽.

현공은 1952년 4월 광주불교선우회(光州佛教禪友會)의 법사로 초빙되어 광주에서 일반 대중들과 승려에게 불교를 가르쳤고, 1954년 5월부터 1963년까지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철학을 가르쳤다.¹⁴⁾ 그는 1967년 광주에서 전주로 거처를 옮겨 승려교육과 대중포교에 힘쓰다가 1969년 음력 11월 12일 전주의 노송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입정하였다가 가부좌한 채로 입적하였다.¹⁵⁾

현공이 제주도서 포교활동을 하던 당시는 제주불교가 좌절과 희망이 교차되던 시기였다. 제주불교는 ‘절오백 당오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널리 신앙되다가 조선조 오랜 불교 억압으로 쇠락하였다. 1908년 관음사가 창건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형식을 갖춘 사찰조차 없이 큰 법당이 없는 절에서 승려가 거처하는 방에 불상을 모신 인법당(因法堂) 수준의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¹⁶⁾ 근대 제주불교는 관음사가 창건 이후 일제강점기에 항일, 친일 혁신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잡혀 1945년 해방당시 활동하는 사찰은 80여개에 이르렀지만 1948년 제주4.3사건으로 제주불교를 주도할 인물들이 대거 희생되고 사찰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제주불교는 다시 좌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¹⁷⁾ 현공이 1951년 겨울에서 이듬해 봄까지 제주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시기는 이처럼 좌절 속에 빠져들던 제주불교가 다시 희망을 싹틔우려던 때였다.

현공의 <제주선경가>과 <불국세계금수강산가>는 제주생활의 산물로 보인다. 그는 <불국세계금수강산가>의 절반 이상을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영주산에 서불(西市)을 보냈던 전설을 소재로 불사약을 먹고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도(道)를 잘 닦아 마음이 늙지 않는 게 중요하며 하루마삿 도를 깨쳐 생멸(生滅)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주도에서 지낸 기간은 비록 1년 남짓

14) 이종표, 「현공 윤주일과 호남불교」, 『호남문화연구』 48,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303쪽.

15) 이동호, 「현공 윤주일대법사 연보」, 『현공 윤주일대법사 설법집』, 호서문화사, 1987, 600쪽.

16) 한금순, 『한국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3, 20쪽.

17) 위의 책, 324-328쪽 참조.

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불국세계금수강산가>와 <제주선경가>와 같은 대중포교를 위한 노래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제주선경가>에서 등장하는 영주십경, 삼성신화, 제주지명, 제주방언 등은 그가 제주에 생활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Ⅲ. 현공의 <제주선경가> 비교 분석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1951년 겨울부터 1952년 4월까지 제주도에 서 노모와 함께 피난생활을 하면서 제주불교를 중흥하기 위해 대중들을 상대로 포교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제주선경가>는 8·5 내지 7·5조 음수율로 된 전체 14절 56행 749자[불보살명호(佛菩薩名號) 36자 포함]의 불교 포교 노래이다. <제주선경가>는 1953년에 출간한 초판 『불교강연집』, 1962년에 출간된 재판 『불교강연집』,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987년에 제자들이 새롭게 출간한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¹⁸⁾과 1988년에 출간된 『불교강설』¹⁹⁾에 실려 있다. 그런데 4곳의 <제주선경가>가 모두 14절 56행 749자로 동일하지만 서로 미세한 차이가 있어 대조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현공 생전의 <제주선경가>

<제주선경가>는 1953년 10월에 출간한 『불교강연집』 초판에 맨 처음 활자화되던 당시는 한국전쟁 직후여서 출판 여건이 어렵던 시기였다. 초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는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행단위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며, 맞춤법도 오늘과 다르다. 하지만 한글

18) 李東豪 編, 『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湖西文化社, 1987, 185-418. 이 책은 현공 사후 법제자들이 그의 논문과 저서 일부를 편찬한 것으로, 『大衆佛敎入敎問答』, 『佛敎講演集』, 『般若心經講義』 등이 실려 있는데, 이 책의 표지에서는 『佛敎講說』로 되어 있고, 책 내용에서는 『佛敎講演集』으로 실려 있다.

19) 尹柱逸, 『佛敎講說』, 宣文出版社, 1988.

이 주가 되고 한자는 옆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한자에 익숙지 않은 일반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초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는 이후에 몇 차례 수정되는 <제주선경가>들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어서 <제주선경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1962년에 출간된 재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도 초판과 마찬가지로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지만 읽기 쉽게 음보에 맞춰 띄어쓰기가 되었고 맞춤법도 요즘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판 『불교강연집』에 실린 <제주선경가>는 현공의 생전에 수정이 이뤄진 것이어서 정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절	행	초판 『불교강연집』(1953) ²⁰⁾	재판 『불교강연집』(1962) ²¹⁾
1	1	濟州仙景 濟州仙景 濟州仙景 구경가세 제주선경 구경가세	濟州仙景 濟州仙景 濟州仙景 구경가세 제주선경 구경가세
	2	日南風和 春은 때에 구경가보세 일남풍화 좋은 때에 구경가보세	日南風和 春은 때에 구경가보세 일남풍화 좋은 때에 구경가보세
	3	南方으로 수로길 오백리가면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가면	南方으로 수로길 오백리가면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가면
	4	岳岳손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웃뚝웃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岳岳손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웃뚝웃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2	1	黃海 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황해 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黃海 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황해 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2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
	3	白鹿潭 머리 위에 감로수이고 백록담 머리 위에 감로수이고	白鹿潭 머리 위에 감로수이고 백록담 머리 위에 감로수이고
	4	방금이제 물속에서 소사나온 듯 방금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 듯	방금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 듯 방금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 듯
3	1	五百將軍 上上 佛은 사람 앉은 양 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 앉은 양	五百將軍 上上 佛은 사람 앉은 양 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 앉은 양
	2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 끄덕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 끄덕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 끄덕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 끄덕
	3	좌우로 아름답게 뺨은 산맥은 좌우로 아름답게 뺨은 산맥은	좌우로 아름답게 뺨은 산맥은 좌우로 아름답게 뺨은 산맥은
	4	두 활개를 벌이면서 마저 드리네 두 활개를 벌리면서 마저 드리네	두 활개를 벌리면서 마저 드리네 두 활개를 벌리면서 마저 드리네
4	1	三仙山 濟州山 漢山 仙山 삼신산 영주산은 한라산인데	三仙山 濟州山 漢山 仙山 삼신산 영주산은 한라산인데
	2	韓山은 우리나라 십경에 제일 한산은 우리나라 십경에 제일	韓山은 우리나라 십경에 제일 한산은 우리나라 십경에 제일
	3	이곳저곳 벌려있는 장한 풍경은 이곳저곳 벌려있는 장한 풍경은	이곳저곳 벌려있는 장한 풍경은 이곳저곳 벌려있는 장한 풍경은
	4	간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간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간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간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5	1	中 濟州 十景 十景 十景 그중에도 영주십경 드러보셔요	中 濟州 十景 十景 十景 그중에도 영주십경 들어보셔요
	2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수 없네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수 없네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수 없네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수 없네
	3	城山출일 뜨는 해는 불타의 광명 성산출일 뜨는 해는 불타의 광명	城山출일 뜨는 해는 불타의 광명 성산출일 뜨는 해는 불타의 광명

	4	사봉낙조 지는해는 일상관일세 <small>사봉낙조 지는해는 일상관일세</small>	사봉낙조 지는해는 일상관일세 <small>사봉낙조 지는해는 일상관일세</small>
6	1	영구춘화 봄꽃은 백화 가란만 <small>영구춘화 봄꽃은 백화 가란만</small>	영구춘화 봄꽃은 백화 가란만 <small>영구춘화 봄꽃은 백화 가란만</small>
	2	굴넉추색 가을빛은 황금세계라 <small>굴넉추색 가을빛은 황금세계라</small>	굴넉추색 가을빛은 황금세계라 <small>굴넉추색 가을빛은 황금세계라</small>
	3	정방하폭 물줄기는 씨윈도하고 <small>정방하폭 물줄기는 씨윈도하고</small>	정방하폭 물줄기는 씨윈도하고 <small>정방하폭 물줄기는 씨윈도하고</small>
	4	녹담만설 쌓인눈은 설산이온듯 <small>녹담만설 쌓인눈은 설산이온듯</small>	녹담만설 쌓인눈은 설산이온듯 <small>녹담만설 쌓인눈은 설산이온듯</small>
7	1	산방굴사 기묘한 수도장인데 <small>산방굴사 기묘한 수도장인데</small>	산방굴사 기묘한 수도장인데 <small>산방굴사 기묘한 수도장인데</small>
	2	령실기암 천불라한 장엄도하다 <small>령실기암 천불라한 장엄도하다</small>	령실기암 천불라한 장엄도하다 <small>령실기암 천불라한 장엄도하다</small>
	3	고수목마노는말은 자유천지요 <small>고수목마노는말은 자유천지요</small>	고수목마 노는말은 자유천지요 <small>고수목마 노는말은 자유천지요</small>
	4	산포조어 뛰는고기룡궁세계라 <small>산포조어 뛰는고기룡궁세계라</small>	산포조어 뛰는고기 용궁세계라 <small>산포조어 뛰는고기 용궁세계라</small>
8	1	아득한옛날옛적삼성혈에서 <small>아득한 옛날옛적 삼성혈에서</small>	아득한 옛날옛적 삼성혈에서 <small>아득한 옛날옛적 삼성혈에서</small>
	2	고부랑삼성님이 소사나오사 <small>고부랑 삼성님이 소사나오사</small>	고부랑 삼성님이 솟아오사 <small>고부랑 삼성님이 솟아오사</small>
	3	일도이도 삼도리에 응겨하시며 <small>일도이도 삼도리에 응겨하시며</small>	일도이도 삼도리에 응겨하시며 <small>일도이도 삼도리에 응겨하시며</small>
	4	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 하셨네 <small>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 하셨네</small>	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 하셨네 <small>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 하셨네</small>
9	1	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 <small>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small>	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 <small>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small>
	2	십육라한 여섯째분발타라존자 <small>십육라한 여섯째분발타라존자</small>	십육라한 여섯째분 발타라존자 <small>십육라한 여섯째분 발타라존자</small>
	3	말세중생제도 하는도 량이라고 <small>말세중생 제도 하는도 량이라고</small>	말세중생 제도 하는도 량이라고 <small>말세중생 제도 하는도 량이라고</small>
	4	팔만장경법주기에 기록 하셨네 <small>팔만장경 법주기에 기록 하셨네</small>	팔만장경 법주기에 기록 하셨네 <small>팔만장경 법주기에 기록 하셨네</small>
10	1	제주라는 제자는 무순제 잔가 <small>제주라는 제자는 무순제 잔가</small>	제주라는 제자는 무순제 잔가 <small>제주라는 제자는 무순제 잔가</small>
	2	고해중생제도 하는건질제 자요 <small>고해중생 제도 하는 건질제 자요</small>	고해중생 제도 하는 건질제 자요 <small>고해중생 제도 하는 건질제 자요</small>
	3	한나산의나자는 무순나 잔고 <small>한나산의 나자는 무순나 잔고</small>	한라산의 라자는 무순나 잔고 <small>한라산의 라자는 무순나 잔고</small>
	4	손을잡고 끌고가는 잠을나 자라 <small>손을잡고 끌고가는 잠을나 자라</small>	손을잡고 끌고가는 잠을나 자라 <small>손을잡고 끌고가는 잠을나 자라</small>
11	1	갈을여자 손수자도 잠을나 자요 <small>갈을여자 손수자도 잠을나 자요</small>	갈을여자 손수자도 잠을나 자요 <small>갈을여자 손수자도 잠을나 자요</small>
	2	합할합자 손수자도 잠을나 자니 <small>합할합자 손수자도 잠을나 자니</small>	합할합자 손수자도 잠을나 자니 <small>합할합자 손수자도 잠을나 자니</small>
	3	두손을합장하고스신모양은 <small>두손을합장하고스신모양은</small>	두손을 합장하고 서신모양은 <small>두손을 합장하고 서신모양은</small>
	4	존자께서례불하는수도상이요 <small>존자께서 예불하는 수도상이요</small>	존자께서 예불하는 수도상이요 <small>존자께서 예불하는 수도상이요</small>
12	1	손에손을마조잡고끄는모양은 <small>손에손을 마조잡고 끄는모양은</small>	손에손을 미주잡고 끄는모양은 <small>손에손을 미주잡고 끄는모양은</small>
	2	고해중생제도 하는전법상이라 <small>고해중생 제도 하는 전법상이라</small>	고해중생 제도 하는 전법상이라 <small>고해중생 제도 하는 전법상이라</small>
	3	등그럽다일원상사백리주위 <small>등그럽다 일원상 사백리주위</small>	등그럽다 일원상 사백리주위 <small>등그럽다 일원상 사백리주위</small>

	4	바다에든반아룡선뱃모양일세 <small>바다에든반아룡선뱃모양일세</small>	바다에든 반아룡선 뱃모양일세 <small>바다에든 반아룡선 뱃모양일세</small>
13	1	이배이름탐볼나주한락산인데 <small>이배이름탐볼나주한락산인데</small>	이배이름 탐볼라주 한락산인데 <small>이배이름 탐볼라주 한락산인데</small>
	2	뱃사공은유명하신발타라존자 <small>뱃사공은유명하신발타라존자</small>	뱃사공은 유명하신 발타라존자 <small>뱃사공은 유명하신 발타라존자</small>
	3	창하도다구백나한옹호하시고 <small>창하도다구백나한옹호하시고</small>	창하도다 구백라한 옹호하시고 <small>창하도다 구백라한 옹호하시고</small>
	4	천상에풍악소리들려오는데 <small>천상에풍악소리들려오는데</small>	천상에 풍악소리 들려오는데 <small>천상에 풍악소리 들려오는데</small>
14	1	모슬포서넘불중생모-다실고 <small>모슬포서넘불중생모-다실고</small>	모슬포서 엽불중생 모-두실고 <small>모슬포서 엽불중생 모-두실고</small>
	2	법환리서법을깨쳐마음둘리세 <small>법환리서법을깨쳐마음둘리세</small>	법환리서 법을깨쳐 마음둘리세 <small>법환리서 법을깨쳐 마음둘리세</small>
	3	서귀포서닷을올려서방정토로 <small>서귀포서닷을올려서방정토로</small>	서귀포서 닷을올려 서방정토로 <small>서귀포서 닷을올려 서방정토로</small>
	4	도라가세극락세계아미타불께 <small>도라가세극락세계아미타불께</small>	돌아가세 극락세계 아미타불께 <small>돌아가세 극락세계 아미타불께</small>
불보 살명 호	1	나무서방대교주무량수여래불 <small>나무서방대교주무량수여래불</small>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여래불 <small>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여래불</small>
	2	나무아미타불 <small>나무아미타불</small>	나무아미타불 <small>나무아미타불</small>
	3	나무관세음보살 <small>나무관세음보살</small>	나무관세음보살 <small>나무관세음보살</small>
	4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small>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small>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small>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small>

재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는 초판에 실렸던 <제주선경가>를 맞춤법에 맞춰 수정했고 띄어쓰기도 음보 단위로 하였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4절에서 초판에서는 ‘모슬포’였던 것이 재판에선 ‘모실포’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행정지명으로서만 본다면 ‘모슬포’가 맞고, 오히려 ‘모실포’가 틀렸다. 이것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현공의 의도적 수정인지에 대해서는 3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현공 사후의 <제주선경가>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987년에 법제자들

- 20) 尹柱逸, 『佛敎講演集』(초판, 전남일보사, 1953, 337-340쪽. 본래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한글 위주이고 한자는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다.
- 21) 尹柱逸, 『佛敎講演集』(재판, 전남일보사, 1962, 197-199쪽. 재판 『불교강설』에서도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한글 위주이고 한자는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다. <제주선경가> 첫 페이지가 197쪽이라야 하는데, 초판과정에서 179쪽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이 새롭게 출간한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과 1988년 출간한 『불교강설』²²⁾에도 실려 있다.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의 <제주선경가>는 맞춤법에 맞춰 다듬어지고 수정되지만, 여전히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음보에 맞춰 띄어쓰기를 하고 있어서 현공의 생전에 출간된 『불교강연집(1953, 1962)』의 <제주선경가>와 형식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1988년에 『불교강연집』의 책명을 바꿔 출간한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는 편집 형식이 가로쓰기 체제로 바뀌었고, 띄어쓰기도 대체로 어절 단위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한자 다음에 한글로 음을 다는 형태여서 일반대중이나 한글세대에게는 오히려 읽기에 다소 거북한 점이 있다. 현공 사후의 <제주선경가>들은 생전에 출간된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와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절	행	『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1987) ²³⁾	『佛敎講說』 (1988) ²⁴⁾
1	1	求景(구경)가세 濟州仙景求景(제주선경구경) 가세	求景(구경)가세 濟州仙景求景(제주선경구경) 가세
	2	日暖風和(일난풍화) 좋은 때에 求景(구경)가보세	日暖風和(일난풍화) 좋은 때에 求景(구경)가보세
	3	南方(남방)으로 水路(수로)길 五百里(오백리) 가면	南方(남방)으로 水路(수로)길 五百里(오백리) 가면
	4	우뚝 솟은 漢拏山(한라산)이 바라보이네	우뚝 솟은 漢拏山(한라산)이 바라보이네
2	1	南海(남해) 바다 한복판에 앉으신모양	南海(남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2	그림으로 그린듯이 아름답고나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
	3	白鹿潭(백록담) 머리위에 甘露水(감로수)이고	白鹿潭(백록담) 머리 위에 甘露水(감로수)이고
	4	방금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듯	방금 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 듯
3	1	五百將軍(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얏은양	五百將軍(오백장군)상상봉은 사람 얏은 양
	2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끄덕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 끄덕
	3	좌우로 아름답게 뻗은산맥은	左右(좌우)로 아름답게 뻗은 山脈(산맥)은
	4	두활개를 벌리면서 맞아들이네	두활개를 벌리면서 맞아드리네

22) 尹柱逸, 『佛敎講說』, 宣文出版社, 1988. 이 책은 현공 사후 『佛敎講演集』의 책명을 바꿔 출간한 것으로 한자가 앞에 두고 한글 독음을 달고 있으며, 가로쓰기로 되어 있다.

4	1	三神山 瀛州山은 한라산인데	三神山(삼신산) 瀛州山(영주산)은 漢孛山(한라산)인데
	2	漢孛山은 우리나라 십경에 제일	漢孛山(한라산)은 우리나라 十景(십경)에 第一(제일)
	3	이곳저곳 벌려있는 장한풍경은	이곳 저곳 벌려 있는 壯(장)한 風景(풍경)은
	4	간곳마다 벌유천지 비인간이라	간곳마다 別有天地非人間(벌유천지비인간)이라
5	1	그중에도 영주십경 들어보셔요	그中(중)에도 瀛州十景(영주십경) 들어보셔요
	2	가지각색 좋은경치 말할수없네	가지 各色(각색) 좋은 景致(경치) 말할수없네
	3	성산출일 뜨는해는 불타의광명	城山出日(성산출일) 뜨는 해는 佛陀(불타)의 光名(광명)
	4	사봉낙조 지는해는 일상관일세	紗峰落照(사봉낙조) 지는 해는 日想觀(일상관)일세
6	1	영주춘화 봄꽃은 백화가난만	瀛區春花(영구춘화) 봄꽃은 百華(백화)가 欄漫(란만)
	2	橘림추색 가을빛은 황금세계라	橘林秋色(귤림추색) 가을 빛은 黃金世界(황금세계)라
	3	정방하폭 물줄기는 시원도하고	正房夏瀑(정방하폭) 물줄기는 시원도 하고
	4	녹담만설 쌓인눈은 설산이든듯	鹿潭晚雪(녹담만설) 쌓인 눈은 雪山(설산)이 온듯
7	1	산방굴사 기묘한 수도장인데	山房窟寺(산방굴사)기묘한 修道場(수도장)인데
	2	영실기암 천불라한 장엄도하다	靈室奇巖(영실기암)천불라한 莊嚴(장엄)도하다
	3	고수목마 노는말은 자유천지요	古藪牧馬(고수목마) 노는 말은 自由天地(자유천지)요
	4	산포조어 뛰는고기 용궁세계라	山浦釣魚(산포조어) 뛰는 고기 世界(용궁세계)라
8	1	아득한 옛날옛적 삼성혈에서	아득한 옛날 옛적 三姓穴(삼성혈)에서
	2	고부랑 삼성님이 솟아나오사	高夫良三姓(고부랑삼성)님이 솟아나오사
	3	일도이도 삼도리에 응거하시며	一徒(일도)二徒(이도) 三徒里(삼도리)에 雄據(응거)하시어
	4	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하셨네	自由樂園(자유낙원)탐라(국)을 建設(건설)하셨네
9	1	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	耽羅國(탐라국)은 佛敎(불교)에서 耽沒羅洲(탐몰라주)니
	2	십육라한 여섯째분 발타라존자	十六羅漢(십육라한) 여섯째 분 跋陀羅尊者(발타라존자)
	3	말세중생 제도하는 도량이라고	末世衆生濟度(말세중생제도)하는 道場(도량)이라고

	4	八萬藏經法住記 <small>法住記</small> 기록하셨네	八萬藏經法住記 ²⁵⁾ (팔만장경법주기에 記錄(기록)하셨네
10	1	濟州 <small>濟州</small> 라는 제자는 무슨제 잔가	濟州(제주)라는 濟字(제자)는 무슨 濟字(제자)가
	2	苦海衆生 <small>苦海衆生</small> 제도하는 건질제 자요	苦海衆生濟度(고해중생제도)하는 건질 濟字(제자)요
	3	漢拿山 <small>漢拿山</small> 의 나자는 무슨나 잔고	漢拿山(한라산)의 拿字(나자)는 무슨 拿字(나자)고
	4	손을잡고 끌고가는 잠을나자라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잠을 拿字(나자)라
11	1	같은여자 손수자도 잠을나자요	같은 如字(여자) 손수字(수자)도 잠을 掣字(나자)요
	2	합할합자 손수자도 잠을나자니	합할 合字(합자) 손수字(수자)도 잠을 拿字(나자)니
	3	두손을 합장하고 서신모양은	두 손을 合掌(합장)하고 서신 모양은
	4	존자께서 예불하는 수도상이요	尊者(존자)께서 禮佛(예불)하는 修道相(수도상)이요
12	1	손에손을 마주잡고 끄는모양은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끄는 모양은
	2	苦海衆生 <small>苦海衆生</small> 제도하는전법상이라	苦海重生濟度(고해중생제도)하는 轉法相(전법상)이라
	3	둥그럽다 일원상 사백리주위	둥그럽다 一圓相(일원상)四百里(사백리)周圍(주위)
	4	바다에든 반야용선 배모양일세	바다에 든 般若龍船(반야용선) 배 모양일세
13	1	이베이름 탐몰라주 한라산인데	이베 이름 耽沒羅洲漢拿山(탐몰라주한산)인데
	2	땃사공은 유명하신 발타라존자	땃槎工(사공)은 有名(유명)하신 跋陀羅尊者(발타라존자)
	3	장하도다 구백라한 옹호하시고	壯(장)하도다 九百羅漢擁護(구백라한옹호)하시고
	4	천상에 풍악소리 들려오는데	天上(천상)에 風樂(풍악)소리 들려오는데
14	1	모슬포서 엄불중생 모-두신고	摩瑟浦(모슬포)서 念佛衆生(엄불중생) 모두 실고
	2	法還里 <small>法還里</small> 서 법을깨쳐 마음돌리세	法還里(법환리)서 法(법)을 깨쳐 마음 돌리세
	3	西歸浦 <small>西歸浦</small> 서 닷을올려 서방정도로	西歸浦(서귀포)서 닷을 올려 西方淨土(서방정도)로
	4	돌아가세 극락세계 아미타불께	돌아가세 極樂世界阿彌陀佛(극락세계아미타불)께
불보살명호	1	南無 <small>南無</small> 서방대교주 무량수여래불	南無西方大教主無量壽如來佛 (나무서방대교주무량수여래불)
	2	南無 <small>南無</small> 아미타불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
	3	南無 <small>南無</small> 관세음보살	南無觀世音菩薩(나무관세음보살)
	4	南無 <small>南無</small> 대세지보살 마하살	南無大勢至菩薩摩訶薩(나무대세지보살 ²⁶⁾ 마하살)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의 <제주선경가>에서는 1962년에 출간된 재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 3절의 ‘마저드리네’를 ‘맞아들이네’로, 6절의 ‘란만(爛漫)’을 ‘난만(爛漫)’, ‘굴림추색(橋林秋色)’을 ‘굴림추색(橋林秋色)’으로, 13절 ‘뱃모양’을 ‘배모양’으로, 14절의 ‘모실포(慕瑟浦)’를 ‘모슬포(慕瑟浦)’, ‘닷’을 ‘닷’ 등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에서는 재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와 비교해볼 때, 2절에서 ‘황해(黃海)바다’를 ‘남해(南海)바다’로, 13절에서 ‘한라산(漢樂山)’을 ‘한나산(漢拿山)’으로, 14절에서 ‘모실포(慕瑟浦)’를 다시 ‘모슬포(慕瑟浦)’로 수정하고 있다.

3. 현공 사후 <제주선경가> 수정에 대한 평가

1) 한라산의 위치 수정에 대하여

현공 생전에 발간된 『불교강연집』 초판(1954)과 재판(1962), 현공 사후 법제자들이 1987년에 펴낸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의 <제주선경가>에서는 모두 한라산의 위치를 “황해(黃海)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라산이 황해바다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8년 새롭게 출간된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에서는 “남해(南海)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으로 바뀌었다. 이는 현공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한라산의 위치를 ‘황해’에서 ‘남해’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라산이 ‘황해’에 있다고 한 것이 현공의 오류였는지,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황해’라고 했는지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공은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의 “제(濟)나라 사람 서불(西市) 등이 글을 올려, ‘바다 가운데 봉래·방장·영주라는 삼신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 재계(齋戒)하여 동남(童男) 동녀(童女)를

23) 李東豪 編, 『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湖西文化社, 1987, 416-418쪽.

24) 尹柱逸, 『佛教講說』, 宣文出版社, 1988, 197-201쪽.

25) ‘法住記’의 오기(誤記)이다.

26) 원문에는 ‘보살’이 탈자(脫字)되어 있다.

거느리고 신선을 찾으려고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서불에게 동남동녀 수천명을 선발하여 바다로 가서 신선을 찾게 하였다.”²⁷⁾는 전설을 인용하여 <불국세계금수강산가>와 <제주선경가>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삼신산은 전설 속의 산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다만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널리 유포되었던 신선사상이 반영된 천하도(天下圖)에서는 삼신산이 일본과 류구(지금의 오키나와)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²⁸⁾ 하지만 현공은 삼신산이 중국대륙의 동쪽 어딘가, 즉 황해에 있다는 전설을 토대로 현공이 삼신산이 하나인 영주산으로 간주되는 한라산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황해바다’라고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삼신산 전설과 중국지리를 기준으로 볼 때 영주산인 한라산은 황해바다에 있는 셈이다.²⁹⁾

한편 현공 생전에 발간한 『불교강연집』(초판, 재판) <불국세계금수강산가> 11절에서는 “남해중(南海中) 영주산(瀛州山)에 불로초(不老草)를 캐어다가”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주산, 즉 한라산이 ‘남해’에 있다고 명시되고 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현공이 생전에 <제주선경가> 2절에서 한라산을 황해바다 한복판에 있다고 한 것은 현공의 실수였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제주선경가>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포교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라는 것을 감안하면,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 가면, 우뚝 솟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남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라고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1988년 출간한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에

27) 齊人徐市等上書，言海中有三神山，名曰蓬萊、方丈、瀛洲，僊人居之。請得齋戒，與童男女求之。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入海求僊人。司馬遷，『史記』本紀 卷六 秦始皇本紀 第六。

28) 오상학,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2005, 27쪽; 오상학, 『천하도』, 2015, 12쪽.

29) 오늘날 중국지리 기준에 의하면, 중국의 황해는 위도 31도40분~39도50분, 동해는 23도~33도10분, 남해는 3도10분~23도에 있다. 북위 33도 6분~34도에 위치한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남해(南海)에 있지만, 중국을 기준으로 볼 때는 황해(黃海)에 있다. 한편, 중국의 남해(南海)는 타이완 이남인 북위 23도 아래쪽 바다를 의미한다. 『中國國家地理地圖』,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10, 16-17쪽.

서 “남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으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2) 한라산(한락산)과 모슬포(모실포) 표기에 대하여

현공의 생전에 출간한 『불교강연집』(초판, 재판)과 사후에 출간한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 <제주선경가> 13절에서는 모두 ‘한라산’을 ‘한락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4절에서는 “삼신산 영주산은 한라산인데…”라 표기하였기 때문에 13절에서 “이 배 이름 탐몰라주 한락산인데…”라 표기한 것은 현공의 오류일 수도 있다. 그리고 1988년에 출간한 『불교강설』에서는 이를 오류라고 인지해서 “이배 이름 耽沒羅洲漢拿山(탐몰라주 한나산)인데”로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수정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을 ‘한나산’이라 하지 않고 ‘한락산’, ‘할락산’, ‘할라산’, ‘할로산’, ‘할루산’ 등으로 말하기 때문이다.³⁰⁾ 현공이 한라산을 ‘한락산’이라 표기했던 것은 직접 들은 제주도민의 제주방언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현공은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포교노래를 지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라산’을 ‘한락산’이라 한 것은 현공의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이었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 있다.

그리고 현공은 생전에 교정하여 출간한 재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에서는 “모실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라 하고 있다. 이는 초판 『불교강연집』에 “모슬포서 염불중생 모-다 실고”, 사후에 제자들이 출간한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에 “모슬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 『불교강설』에 “모슬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로 표기한 것과 다르다. 여기서 ‘모슬포’가 정명이기 때문에 현공이 재판 『불교강연집』에서 ‘모실포’라 한 것은 잘못 표기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현공 사후에 제자들도 새로운 판을 내면서 ‘모슬포’로 수정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공이 생전에 교정 출간한 재판 『불교강연집』 <제주

30) 송상조, 『제주말큰사전』, 2008, 705-707쪽;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872-873쪽.

선경가>에서는 ‘모슬포’를 ‘모실포’로 표기한 취지를 좀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모슬포’의 옛이름은 ‘모슬개’, ‘모살개. 모실개’ ‘모실개’이다. ‘모슬, 모살, 모실’ 등은 ‘모래’의 제주방언으로, 제주도민들은 ‘모슬포’를 ‘모실포’라고도 한다.³¹⁾ 그렇기 때문에 현공은 초판 <제주선경가>에서 “**모슬포서**염불중생**모-다실고**”라 했던 것을 재판 <제주선경가>에서 “**모실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로 교정했다. 제주도민들이 ‘모슬포’를 ‘모실포’라고도 말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실포’에서 ‘모’와 ‘실’을 ‘염불중생 모-두 실고’라는 구절에서 살려낸 것이다.

하지만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발간한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의 <제주선경가>에서는 “...**모슬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서 모슬포에서 염불중생을 모두 신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불교강설』 <제주선경가>에서는 “**모슬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로 수정되었지만, 이 역시 모슬포에서 염불중생을 모두 신는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염불중생 모-두 실고’라는 대목과 어울리려면 정명인 ‘모슬포’가 아니라 현지 제주도민들이 사용하는 ‘모실포’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현공이 생전에 교정한 재판 『불교강연집』 <제주선경가>에서 “이 배 이름 탐몰라주 **한락산**인데... **모실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라는 대목은 그가 제주도에 생활하면서 현지 제주방언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구절이다. 현공은 <제주선경가>에서 현지 제주도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락산’ ‘모실포’ 등의 제주방언을 수용하여, 불교대중화 차원에서 민중들의 눈높이에서 제주도가 불연이 깊은 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한락산’을 ‘한나산’으로, ‘모실포’를 ‘모슬포’로 수정했던 것은 제주도민들이 일상에서 쓰던 제주방언을 포교노래에 사용함으로써 제주불교의 대중화를 시도하려 했던 현공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3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290쪽; 고평민,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141쪽.

IV. 현공의 <제주선경가>의 의의

1. 불교가사 전통의 계승

현공은 불교대중 포교를 위해 <제주선경가>, <관세음보살찬탄가>, <불국세계금수강산가>를 지었다. <제주선경가>는 7.5조와 8.5조 형식을 하고 있으며 14절 56행 749자[불명호 36자 포함]로 되어 있고, <관세음보살찬탄가>는 7.5조 형식을 하고 있으며 10절 40행 495자로 되어 있으며, <불국세계금수강산가>는 4.4조 형식을 하고 있으며 18절 72행 1150자[불명호 12자 포함]로 되어 있다.

임기중은 『불교가사연구』³²⁾ 머리말에서 한국의 가사문학은 불교가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불교가사는 불교의 발원문(發願文)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불교가사는 고려말 나옹의 <서왕가>를 시작으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수에 달하는 작품이 전해지고 있고, 소재를 중심으로 분류할 때 교술, 서정, 서사적 성격으로 나뉘는데, 대체로 어느 한 요소가 강하더라도 나머지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³³⁾

그리고 1800년대 민속화되던 불교가사는 1900년대 이후 선승의 문집(『경허집』 『만공어록』)과 불교잡지(『조선불교월보』 『불교』 등)를 통해 기존의 불교가사가 새롭게 소개하고, 당시에 불리기 시작한 불교창가가 소개되었다.³⁴⁾ 한국 근대불교의 선승인 경허(鏡虛), 용성(龍城), 학명(鶴鳴), 만공(滿空), 한암(漢巖) 등은 대중포교의 방편으로 불교가사를 활용하였다.³⁵⁾ 그리고 개화기에는 조선조 가사와 동일한 4.4조, 일본 창가조인 6.5조, 7.5조, 8.5조 등의 창가들이 등장했다.³⁶⁾ 권상로, 김태흡 등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짧고 경쾌한 신체불교가사 내지는 불교창가를 지어 불교를 포교하였다.³⁷⁾ 특히 1935년 경성 만상회(卍商會)에서 펴

32) 임기중, 『불교가사연구』, 동국대출판부, 2001.

33) 위의 책, 115-117쪽 참조.

34) 위의 책, 22쪽.

35)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출판부, 2000, 779-881쪽; 김종진, 『불교가사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9, 289-341쪽 참조.

36) 김병선, 『창가와 신시의 형성연구』, 소명출판, 출판부, 2008, 24-25쪽.

낸 불교의식집인 『석문의범(釋門儀範)』³⁸⁾에는 <참선곡>, <회심곡>, <백발가>, <몽환가>, <원적가>, <왕생가> 등의 불교가사와 <찬불가>, <성도가>, <오도가> 등의 불교창가가 수록되었고, 1949년에는 <열반가>, <목련지효가>, <학도권면가> 등의 불교창가가 첨가되었다.³⁹⁾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다른 두 노래와 함께 노래를 통한 포교라는 불교가사와 불교창가의 전통을 잇고 있다.

하지만 현공의 노래들은 1953년에 활자화 되었는데도 기존의 가사문학이나 불교가사 연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연구되지도 않았다.⁴⁰⁾ 임기중의 한글 발원노래 108편을 모은 『불교가사 원전연구』에 비춰 볼 때 <제주선경가>처럼 특정 지역을 포교하기 위한 불교가사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제주선경가>는 제주라는 특정지역의 불교 포교를 위한 노래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따라서 현공의 <제주선경가>, <관세음보살 찬타가>, <불국세계금수강산가>에 대한 불교가사문학 연구자들의 보다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2. 영주십경에 대한 불교적 의미부여

제주섬, 특히 한라산의 자연경관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될 만큼 매우 뛰어나다. 고려시대 이후로 제주는 도가(仙家)의 이상향인 ‘영주(瀛洲)’로 불렸고, 도가적 교양을 갖추고 있던 조선 유학자들은 한라산을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야계 이익태(冶溪 李益泰, 1633~1704), 응와 이

37)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출판부, 2000, 1129-1153쪽; 김종진,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 이회, 2002, 275쪽 참조

38) 편자는 안진호(安震湖, 1880~1965)이며, 권상로(權相老, 1879~1965)와 김태흠(金泰洽, 1899~1989)이 공교(共校)하였다.

39) 임기중, 『불교가사연구』, 동국대출판부, 2001, 13-14쪽;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출판부, 2000, 1129-1153쪽, 1129-1153쪽.

40)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출판부, 2000; 임기중, 『불교가사연구』, 동국대출판부, 2001; 김종진,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 이회, 2002; 김종진,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 소명출판, 2009; 신지연 외, 『개화기 가사 자료집5(VI. 종교)』, 보고서, 2011 참조.

원조(凝窩 李源祚, 1792~1871), 매계 이한우(梅溪 李漢雨, 1818~ 1881) 등은 제주의 자연과 문물을 시로 남겼다. 그들은 제주를 도가의 선경은 아니지만 유가의 수양론을 실천할 수 있는 선경으로 창조해냈던 것이다.⁴¹⁾

특히 제주의 향토 유학자였던 매계 이한우는 제주섬의 빼어난 경관 10곳, 즉 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區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굴림추색(橘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晚雪),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고수목마(古藪牧馬), 산포조어(山浦釣魚)를 영주십경(瀛洲十景)이라 특정하였다. 영주십경은 제주섬의 경관 정체성을 표출하는 경관으로 화산섬이라는 지형학적 특성, 온대와 아열대의 접이지대라는 따뜻한 기후적 특성, 섬이라는 해양문화적 특성, 몽골강점 이후 군마공급지와 신선의 고장이라는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 탄생되었다.⁴²⁾

현공 윤주일은 제주섬이 신선들이 살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는 의미로 ‘제주선경(濟州仙景)’을 끌어들인다. 그는 <제주선경가>에서 이전까지 도가적 이상향으로 불리던 제주섬을 불가(佛家)의 고장으로 변안(飜案)하고 있다. 그는 삼신산 가운데 하나인 영주산(한라산), 유가 선비들이 노래한 영주십경, 삼성신화를 개국신화로 하는 탐라, 타원형의 제주섬 모양과 여러 지명 등을 불교와 연관시키면서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등에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공은 <제주선경가>의 전반부에서 백록담을 한라산이 감로수(甘露水)를 이고 있는 것에 비유한다. 감로수는 불교에서 한 방울만 먹어도 온갖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음료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달콤하고 이슬에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공은 신선이 노닐었다는 도가의 삼신산 중 하나인 한라산 백록담을 불가의 감로수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불연(佛緣)을 맺고 있다.

그리고 현공은 조선 유학자들이 도가의 선경으로 창조해낸 영주십경을 불교적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 성산출일(城山出日)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부처님의 광명을, 사봉낙조(紗峰落照)에서 지는 해를

41) 김치완, 「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 인식과 그 태도」, 『대동철학』 59, 대동철학회, 2012, 150-151쪽.

42) 윤용택, 「제주다움에 비취본 영주십경」, 『제주도연구』 42, 제주학회, 2015, 3쪽.

보면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일상관(日想觀)⁴³⁾을 생각한다. 그는 영구춘화(瀛區春花)와 굴림추색(楡林秋色)에서 흐드러진 봄꽃과 노랗게 익어가는 곁을 보면서 백화만발하고 황금으로 가득 찬 극락세계를 떠올리고, 여름에 물보라 치며 떨어지는 정방하폭(正房夏瀑)에서는 번뇌가 사라진 시원한 모습을, 늦봄까지 쌓여 있는 녹담만설(鹿潭晚雪)에서는 석가모니가 수행하던 설산(雪山)을 그려본다. 그리고 그는 망망대해가 내다보이는 산방굴사(山房窟寺)는 기묘한 수도처로, 기암괴석의 영실기암(靈室奇巖)은 불도를 닦는 아라한들의 거주처로 상정되고, 넓은 초원에서 맘껏 뛰노는 고수목마(古藪牧馬)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를 찾은 모습을, 바다에서 낚시하는 산포조어(山浦釣魚)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용왕이 산다는 용궁을 연상하고 있다.

이처럼 현공이 영주십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불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민과 함께 했던 제주생활과 그동안 불교 강의를 하면서 쌓은 불교에 대한 깊은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주십경을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현공의 시도는 그동안 유가(儒家) 내지는 도가(道家)적으로만 접근하던 영주십경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3. ‘탐라’에 대한 불교적 의미 부여

현공은 <제주선경가> 후반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와 불교의

43) 일상관(日想觀)은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서 극락세계를 관(觀)하는 16관법 가운데 제1관으로, 지는 해를 보고 극락세계를 관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위계희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이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해를 똑똑히 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게 간직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러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보도록 하시오. 그래서 해를 보고 난 후에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한결같이 분명히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를 관하는 일상관(日想觀)이라 하고 또한 첫째 관(觀)이라고 말합니다.’ 「관무량수경」, 『淨土三部經』, 청화 옮김, 광륜, 2007, 261쪽.

인연을 강조한다. 삼성혈에서 고부양 삼성이 나와서 건설했다는 탐라국(耽羅國)은 석가모니 제자인 발타라존자(跋陀羅尊者)가 9백아라한과 함께 산다는 ‘담몰라주(耽沒羅洲)’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서기 266년에 집사자국(執師子國, 지금의 스리랑카)의 대아라한 난제밀다라(難提蜜多羅)가 짓고 당(唐)의 현장(玄奘, 602~664)이 번역한 <대아라한난제밀다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所說法住記, 이하 법주기)>⁴⁴⁾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열여섯 대아라한(大阿羅漢)과 그 권속들에게 불법을 부촉하여 잘 호지하라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여섯 번째인 발타라존자가 9백아라한들과 함께 담몰라주에 산다”는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아라한(阿羅漢)은 산스크리트어 ‘Arhat’의 한자 음역(音譯)으로 줄여서 나한(羅漢)이라고 하는데, 초기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44) 如是傳聞 佛薄伽梵般涅槃 後八百年中 執師子國勝軍王都有阿羅漢 名難提蜜多羅 <唐言 慶友>...尊者告曰 汝等諦聽 如來先已說法住經 今當爲汝粗更宣說 佛薄伽梵般涅槃時 以無上法付囑十六大阿羅漢 并眷屬等令其護持使不滅沒 及勅其身與諸施主作眞福田 令彼施者得大果報 時諸大衆聞是語已少解憂悲 復重請言所說十六大阿羅漢 我輩不知其名何等 慶友答言 第一尊者名賓度羅跋囉憍閻 第二尊者名迦諾迦伐蹉 第三尊者名迦諾迦跋釐檀閻 第四尊者名蘇頻陀 第五尊者名諾距羅 第六尊者名跋陀羅 第七尊者名迦理迦 第八尊者名伐闍羅弗多羅 第九尊者名戍博迦 第十尊者名半託迦 第十一尊者名囉怛羅 第十二尊者名那伽犀那 第十三尊者名因揭陀 第十四尊者名伐那婆斯 第十五尊者名阿氏多 第十六尊者名注茶半託迦 如是十六大阿羅漢 一切皆具三明六通八解脫等無量功德 離三界染誦 持三藏博通外典 承佛勅故以神通力延自壽量 乃至世尊正法應住常隨 護持及與施主作眞福田 令彼施者得大果報 爾時苾芻苾芻尼等 復重請言 我等不知 十六尊者多住何處 護持正法饒益有情 慶友答言 第一尊者與自眷屬千阿羅漢多分住在西瞿陀尼洲 第二尊者與自眷屬五百阿羅漢多分住北方迦濕彌羅國 第三尊者與自眷屬六百阿羅漢多分住在東勝身洲 第四尊者與自眷屬七百阿羅漢多分住在北俱盧洲 第五尊者與自眷屬八百阿羅漢多分住在南瞻部洲 第六尊者與自眷屬九百阿羅漢多分住在耽沒羅洲 第七尊者與自眷屬千阿羅漢多分住在僧伽茶洲 第八尊者與自眷屬千一百阿羅漢多分住在鉢刺拏洲 第九尊者與自眷屬九百阿羅漢多分住在香醉山中 第十尊者與自眷屬千三百阿羅漢多分住在三十三天 第十一尊者與自眷屬千一百阿羅漢多分住在畢利颺瞿洲 第十二尊者與自眷屬千二百阿羅漢多分住在半度波山 第十三尊者與自眷屬千三百阿羅漢多分住在廣務山中 第十四尊者與自眷屬千四百阿羅漢多分住在可住山中 第十五尊者與自眷屬千五百阿羅漢多分住在鷲峯山中 第十六尊者與自眷屬千六百阿羅漢多分住在持軸山中...’,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 畫 大唐三藏法師玄奘奉 詔譯(고려대장경 K-1046[30-0686])

불제자'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대승불교에 오면 '깨달음을 얻은 후 타인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불제자'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아라한은 보통 십육나한, 십팔나한, 오백나한, 천이백나한 등으로 군집되어 신앙되며, <법주기>에서 열여섯 대아라한과 함께하는 아라한의 수는 다 합치면 16900나한이나 된다. 십육나한 신앙은 당의 현장이 <법주기>를 번역한 7세기 이후 크게 발달하여 당말 오대, 송대에 이르기까지 유행하였다. 나한신앙은 『삼국유사』나 금석문을 통해 볼 때 통일신라 후기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와 조선시대에 국난극복, 왕실강건, 추복기원 등 다양한 요구에 답하며 전개되어 갔다.⁴⁵⁾

'탐라'가 '탐몰라주'라는 주장은 1918년 이능화(李能和, 1869~1943)가 『조선불교통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법주기』에 이르되, 열여섯 나한이 각 거처하는 곳이 있다. (여섯번째 발타라존자) 산스크리트어로 발타라는 중국말로 호현(好賢)이다. 이 존자는 9백아라한과 함께 대부분 탐몰라주에 머물러 있다.' 전해 오기를 탐몰라주는 탐라를 말하는데, 지금의 제주도이다. ... 『여지승람』을 살펴보면, 제주의 존자암은 한라산의 서쪽 고개에 있는데, 그 동굴에 돌이 있다. 그런데 마치 승려가 수행하여 도를 닦는 형상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수행동이라 했다. 존자암은 발타라존자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른바 5백장군석이라는 것도 5백나한석의 잘못된 칭호가 아닌가 한다...⁴⁶⁾

이후 제주불교학계에서는 이를 인용하면서, 옛 이름이 탐라인 제주섬은 부처님의 유명한 제자인 발타라존자가 9백아라한과 거주하는 탐몰라주이고, 영실의 존자암은 발타라존자 수행하던 암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탐라의 불교 전래는 삼국시대에 공인된 전래보다 훨씬 빨리 전래되었다

45) 박성철, 「나한신앙과 그 한국적 전개」, 『불교문화』 14.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14, 18-19쪽.

46) 法住記云 十六羅漢 各有住處 而「(六跋陀羅尊者) 梵語跋陀羅 華言好賢 此尊者與九百阿羅漢 多分住在耽沒羅洲」 相傳耽沒羅洲 卽謂耽羅 今濟州島也... 按輿地勝覽 「濟州尊者菴 在漢拏山西嶺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云云 尊者菴 疑卽以跋陀羅尊者故名耳 其所謂五百將軍石 疑五百羅漢石之訛稱也 ... 李能和, 『원문개정판 朝鮮佛教通史』7, 동국대 불교문화원 조사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편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609-610쪽

고 주장하기도 한다.⁴⁷⁾

‘탐라’가 ‘탐몰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역사 자료는 없다. 다만 『수서(隋書)』 백제에 “진(陳)을 평정하던 해에, 군선이 표류하여 바다 동쪽의 탐모라국(耽牟羅國)에 닿았다. 그 배가 돌아올 때 백제를 경유하여 가게 되었는데, 창이 이 배를 후하게 지원하여 보내고, 사신을 같이 파견하여 진을 평정한 것을 기리는 표를 올렸다. … 그(백제) 남쪽에 바다로 석 달을 가면 탐모라국이 있는데, 남북으로 1000여 리이고 동서로 수백 리이다. 토산물로 노루, 사슴이 많이 나고 백제에 부용해 있다.”⁴⁸⁾는 대목이 있는데, 백제로부터의 거리나 크기로 보아 그 ‘탐모라국’이 ‘탐라국(耽羅國)’인지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편찬한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동성왕 20년에 “탐라(耽羅)가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친히 정벌하러 나가 무진주에 이르렀는데, 탐라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므로 친히 정벌하는 것을 멈추었다. 탐라가 곧 탐모라(耽牟羅)이다”⁴⁹⁾라 하고 있고, 위덕왕(威德王) 36년에 “수(隋)가 진(陳)을 평정했다. 수의 전선 한 척이 표류하여 탐모라국에 이르렀다가 그 배가 국경을 지나가게 되자, 왕이 매우 후하게 재물을 주어보내고, 아울러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려 진을 평정한 것을 축하드렸다”⁵⁰⁾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탐모라’가 제주섬의 옛 이름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탐라(耽羅)와 탐몰라(耽沒羅)는 유사성이 높고, 『법주기』가 전래된 고려시기부터는 영실기암 부근의 존자암이 나한의 상주처(常住處)라는 신앙이 정착되었다⁵¹⁾는 주장도 있

47) 석대효, 『제주도지』 제3권, 제주도, 1993, 666-667쪽; 석혜경, 『서귀포지』 하권, 서귀포시, 2001, 870쪽.

48) ‘平陳之歲 戰船漂至海東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百濟 昌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陳… 其(百濟)南海 行三月 有耽牟羅國 南北百餘里 東西數百里 土多獐鹿 附庸於百濟’, 『隋書』 卷81-「列傳」, 第46-〈百濟〉, 『北齊書, 周書, 隋書』, 경인문화사편, 발행연도 불명, 881-882쪽.

49) 東城王 二十年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耽羅卽耽牟羅, 金富軾, 『三國史記』 「百濟本紀」 상고사학회 편, 고대사, 2010.

50) 威德王 三十六年 隋平陳 有一戰船漂至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國界 王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陳, 金富軾, 『三國史記』 「百濟本紀」 상고사학회 편, 고대사, 2010.

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공은 제주의 삼성신화와 팔만대장경의 『법주기』를 인용하여 “아득한 옛날 옛적 삼성혈에서 고부량 삼성님이 솟아나오사 일도 이도 삼도리에 웅거하시며 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하셨네 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 십육라한 여섯째분 발타라존자 말세중생 제도하는 도량이라고 팔만장경 법주기에 기록하셨네”라고 노래하고 있다. 제주섬은 석가모니 제자인 발타라존자가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으로 불연이 매우 깊은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역사나 제주어를 연구하는 이들은 ‘탐라가 탐몰라주이고, 영실의 존자암이 발타라존자가 수도하던 곳’이라는 설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제주어학자인 강영봉은 <법주기>에 등장하는 열여섯 대아라한들이 거주처 대부분이 관념의 장소인 것으로 보아 ‘탐몰라주’도 추상적인 지역이지 구체적인 ‘제주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⁵²⁾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는 ‘존자암’이 발타라존자가 거주하면서 수행했던 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인도 원시불교사의 충분한 문헌학적 고증이나 고고학적 뒷받침 없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며,⁵³⁾ 이영권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직후는 탐라국이 형성되지 못한 단계여서 정치경제적으로 존자암을 창간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존자암이 2500년전 발타라존자가 창건한 한국불교 최초사찰이라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한다.⁵⁴⁾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종교가 신화와 전설 등을 토대로 신앙체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점, 그리고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제주도민에게 불심을 심어주기 방편으로 지은 포교 노래라는 것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51) 정병삼, 『탐라사』II,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2009, 620-622쪽.

52) 강영봉, 「耽沒羅洲 小考」, 『영주어문학』 4, 제주대 영주어문학회, 2002, 4쪽 및 13쪽.

53) 제주대박물관, 『존자암지』, 1996, 33쪽.

54) 이영권, 「최초 불교 전래지라고 알려진 존자암, 그 허와 실을 찾아서」, 『교육제주』 1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1, 143쪽.

4. 제주섬 지형과 지명에 대한 불교적 의미 부여

제주섬은 그 중심에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이 솟아있는 타원형의 섬이다. 현공은 제주섬 지형에서 우주만상의 본체가 원명적정(圓明寂靜)하고 모든 형상을 초월하며 모든 활동을 갖추고 있다는 ‘일원상(一圓相)’의 모습을 보고, 고해(苦海)에 빠진 중생들이 극락세계로 건너갈 때 타고 간다는 ‘반야용선(般若龍船)’ 모습을 본다. 그는 그 배의 선장은 석가모니의 제자인 발타라존자이고, 함께 타고가는 선원들은 구백 아라한들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신심(信心)을 가지고 불교에 귀의하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현공은 제주(濟州), 한라산(漢拿山, 漢拏山), 서귀포(西歸浦), 법환리(法還里)라는 지명의 한자풀이를 통해서 불교와 인연을 연결시킨다. ‘건질 제(濟)’라는 뜻을 가진 제주(濟州)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을 제도(濟度)한다’는 불교적 의미를 지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부여는 한라산(漢拿山, 漢拏山)의 뜻풀이에서도 이어진다. 한라산의 ‘나(拿, 拏)’지는 ‘두 손을 합장한다’는 의미와 ‘중생들의 손을 잡고 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한라산’이라는 말 속에는 ‘두 손을 합장해서 수도하면서 불법(佛法)을 중생들에게 널리 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공은 제주도민들이 ‘모슬포’를 ‘**모실포**’라고 발음한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법환리(法還里)**’와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의 의미를 살려 “**모실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 법환리서** **법을 깨쳐 마음들리세, 서귀포서** **닷을 올려 서방정토 돌아가세** 극락세계 아미타불께”라고 노래한다. 현공은 평소에 염불을 지성으로 열심히 하거나, 육바라밀, 즉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正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잘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곤 했다.⁵⁵⁾ 그는 <제주선경가>에서 제주도민에게 모슬포, 법환리, 서귀포 등의 친숙한 제주지명을 끌어들여, 염불만 열심히 해도 깨달음을 얻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현공은 <제주선경가>에서 제주섬의 아름다운 경관(영주십

55) 李東豪 編, 『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호서문화사, 1987, 253-324쪽 참조.

경), 역사와 신화(탐라, 삼성신화), 지형(한라산, 영실), 지명(제주, 한라산, 모실포, 법환리, 서귀포, 일도, 이도, 삼도리) 등을 불연(佛緣)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락산’ ‘모실포’ 등의 제주방언을 수용하여, 대중의 눈높이에서 제주도가 불국정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내용과 작법 면에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불교 정신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

V. 맺는말

현공 윤주일은 우리나라 현대불교 선각자들인 용성, 만해 등의 불교 개혁사상과 불교대중화 운동을 계승하여 실천한 불교사상가이다. 그는 1951년 겨울에서 이듬해 봄까지 1년 남짓 제주도에 피난생활을 한 바 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제주선경가>를 남겼다. 그는 일제강점기, 4.3사건, 한국전쟁 등으로 절망하던 당시 쇠락한 불교를 중흥하고 제주도민에게 불교를 통해 희망을 주기 위해 <제주선경가>를 지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1953년 출간된 『불교강연집』에서 맨 처음 문자화된 이후 1962년 『불교강연집』에서 맞춤법에 맞춰 교정을 하였고, 현공 사후인 1987년에 제자들이 새롭게 출간한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과 1988년 『불교강설』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침으로써 네 가지 <제주선경가>가 있게 되었다. 현공 사후에 ‘한락산’이 ‘한나산’으로, ‘모실포’가 ‘모실포’ 등으로 수정이 이뤄진 것은 제주도민이 일상에서 쓰는 제주방언을 존중하려 했던 현공의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보인다.

현공은 그동안 유학자들이 도가적 이상향으로 구성한 영주십경을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부여를 하여 불국정도를 나타내는 징표로 재해석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의 시도는 앞으로 영주십경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팔만대장경의 <법주기>와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탐라의 건국신화와 팔만대장경의 법주기를 연계해서 탐라와 석가모니의 제자인 발타라존자가 산다는 탐

몰라주를 연결시키고, 제주섬의 모양과 지명들에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공의 시도에 대해서 지나친 아전인수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제주선경가>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포교 노래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현공은 <제주선경가> 이외에도 <관세음보살찬탄가>와 <불국세계 금수강산가>를 남겼다. 노래로 불교를 포교하려는 시도는 고려말 나옹의 <서왕가>를 필두로 20세기 불교신체가사 내지는 불교창가에 이르는 불교가사의 오랜 전통이다. 특히 1935년 펴낸 불교의식집인 『석문의범』에는 불교가사와 불교창가가 여럿 수록되었는데, 현공의 세 노래도 그러한 불교 포교의 전통을 잇고 있다. 특히 <제주선경가>는 제주의 지형, 역사, 지명 등에 불교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민들을 위한 대중포교 노래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주선경가>에 대한 문학사적 논의, 불교사상적 논의, 제주불교사적 논의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그의 다른 두 포교 노래와 함께 국문학계, 불교학계, 제주학계 등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 연구가 요망된다. 그리고 현공의 <제주선경가>가 1982년 제주신문 보도를 통해 제주지역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원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알려졌고, 것처럼 잘못 알려진 <제주선경가>의 내용이 지금도 제주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과제로 넘긴다.

참 고 문 헌

- 강영봉, 「耽沒羅洲 小考」, 『영주어문학』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
- 고광민,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 김병선, 『창가와 신시의 형성연구』, 소명출판, 출판부, 2008.
- 김부식, 『삼국사기』 「백제본기」 상고사학회 편, 고대사, 2010.
- 김종진,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 소명출판, 2009.
- _____,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 이회, 2002.
- 김치완, 「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 인식과 그 태도」, 『대동철학』 59, 대동철학회, 2012.
- 박성철, 「나한신앙과 그 한국적 전개」, 『불교문화』 14.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14.
- 송상조,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2008.
- 신지연 외, 『개화기 가사 자료집(VI. 종교)』, 보고사, 2011.
- 양순필, 「응와의 ‘영주십경가’ 고」, 『백록어문』 8, 제주대 백록어문학회, 1991.
- 양은용, 「현공윤주일의 유폐문건의 사료적 성격」, 『한국종교』 18,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3.
- 오상학,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2005.
- _____, 『천하도: 조선의 코스모그래피』, 문학동네, 2015.
-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윤용택, 「제주다움에 비취본 영주십경」, 『제주도연구』 42, 제주학회, 2015.
- 윤주일, 『불교강연집』(초판), 전남일보사, 1953.
- _____, 『불교강연집』(재판), 전남일보사, 1962.
- _____, 『불교강설』, 선문출판사, 1988.
- 이능화, 「원문개정판 조선불교통사」 7, 동국대 불교문화원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편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이동호 편,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 호서문화사, 1987.
- 이영권, 「최초 불교 전래지라고 알려진 존자암, 그 허와 실을 찾아서」, 『교육제주』 15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1.
- 이중표, 「현공 윤주일과 호남불교」, 『호남문화연구』 48,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출판부, 2000.
- _____, 『불교가사연구』, 동국대출판부, 2001.

- 제주대박물관, 『존자암지』, 1996.
-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사름 곤는 말』 두 번째 펴내는 책, 2013.
- 한금순, 『한국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3.
- 『서귀포지』 하권, 서귀포시, 2001.
- 『淨土三部經』, 청화 옮김, 광륜, 2007.
- 『제주도지』 제3권, 제주도, 1993.
- 『탐라사』II,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2009.
- 『제주신문』, 1982년 7월 31일 「海印寺 팔만대장경 가운데 <濟州仙境歌> 있어 주목」
-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 畫 大唐三藏法師玄奘 奉詔譯 (高麗大藏經 K-1046 [30-0686]).
- 『北齊書, 周書, 隋書』, 경인문화사편, 발행연도 불명.
- 『中國國家地理地圖』,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10.
- 司馬遷, 『史記』 本紀 卷六 秦始皇本紀 第六.
- 제주문인협회 홈페이지
- http://jejumunin.com/01_munin/board.php?board=jm001&category=9&command=body&no=693&PHPSESSID=b5ed2e0cdf5b205036fc3ce643dd0d2a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Hyunkong Yun Jooil's 〈Jejuseonkyeong-ga〉

Yoon, Yong-Taek*

Hyunkong Yun Jooil(玄空 尹柱逸, 1895~1969) studied under Yongseong(龍城, 1864~1940) and Manhae(卍海, 1879~1944), and inherited their Renewed and Popularized Buddhism. He took refuge in Jeju island during the Korean War, and wrote <Jejuseonkyeong-ga>, <Kwanseumbosalchantan-ga>, and <Bulguksegyeogeumsugangsan-ga>. The poems were first published in 1953 in Gwangju. But <Jejuseonkyeong-ga> was known in Jeju Island over the Jeju newspaper in 1982. It reported very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Jejuseonkyeong-ga>, still false information about <Jejuseonkyeong-ga> has been prevailing in Jeju.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rrect introduction of <Jejuseonkyeong-ga>.

The Buddhist Gasa poems for the propagation of Buddhism were originated from the late Koryo dynasty and had been lasted until the 20th century. Hyunkong's Buddhist poems for the propagation of Buddhism were followed by those traditions. In <Jejuseonkyeong-ga> Hyunkong reinterpreted Yeongjusipkyeong regarded as Taoist Utopia for Confucians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gave the Buddhist meaning to nature, history and place names of Jeju island.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Hyeonkong proposed a new model for public propagation of Buddhism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local people. His Buddhist interpretation of Yeongjusipkyeong will open up new horizons in the study of Yeongjusipkyeong. Therefore, it has to be made more systematic and in-depth studies of Hyeonkong's Buddhist poems from the Korean literary aspects, the Buddhist thought aspects, the Jeju Buddhism aspects.

Key Word : Hyunkong Yun Jooil, Jejusonkyeong-ga, Yeongjusipkyeong, Buddhist Gasa poem, Jeju Buddhism.

교신 : 윤용택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제주대학교 철학과
(E-mail : sumsaram@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04. 30.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

